

황윤석의 『해동이적』 ‘보’의 편술 양상과 의미*

홍만중 『해동이적』과의 동일인물을 중심으로

배아영**

목 차

- | | |
|-----------------------|------------------------|
| 1. 들어가는 말 | 4. 조선 후기 한 유학자의 이인의 계보 |
| 2. 異蹟의 약화로서의 ‘補’ | 만들기 |
| 3. ‘補’의 유무에 따른 작품의 실제 | 참고문헌 |
| | <Abstract> |

국문초록

이 글은 황윤석의 『해동이적』 ‘보’가 홍만중의 『해동이적』을 보충한 양상과 의미를 살핀다. 『해동이적』 ‘보’는 홍만중의 『해동이적』을 저본으로 하여 황윤석의 시각으로 형식과 내용을 재구성하고, 그것을 보(補)로 명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해동이적』 ‘보’의 특징과 의미는 홍만중본과의 차이점을 통해 가장 잘 드러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본고는 두 본에서 공통으로 다루는 29편의 인물을 주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황윤석의 ‘보’를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하였다.

홍만중의 『해동이적』을 살펴보면, 홍만중은 신화, 전기, 정사, 지리서 등의 다양한 문학적 자료를 수용하여 대상인물이 보이는 이인적 면모에 집중한다. 그에 따라 『해동이적』은 각 편마다 인물의 이적을 중심으로 한 서사구조를 지닌다.

이에 반해 황윤석은 자료의 출처, 인물의 계통, 연대 등을 강화하면서 고증적이

* 이 글은 필자의 석사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지난 9월 23일 개최된 제4기 우수학위논문지원사업 성과발표회에서의 심사 및 토론 내용을 반영하였음을 밝혀둔다.

**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수료, E-mail: aybee@naver.com

고 실증적인 태도로 대상인물을 다룬다. 따라서 『해동이적』 ‘보’는 편 구성, 인물 배열의 순서, 주석 사용 등 체제에서 『해동이적』과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인물을 다루는 내용에서도 황윤석은 인물 혹은 자료에 대한 고증과 설명에 치우친다.

『해동이적』과 『해동이적』 ‘보’는 작가적 지향이 뚜렷한 글이다. 그런 의미에서 황윤석이 홍만종의 『해동이적』을 보충한 출발점은 홍만종의 『해동이적』이 드러내는 도가적 지향에 대한 비판의식인 것으로 보인다. 황윤석은 홍만종의 도가적 지향을 비판하고 자신의 유가적 지향을 드러내는 방편으로 홍만종의 글을 고증하면서 이를 ‘보’라고 명명한 것이다.

황윤석은 홍만종이 다룬 이인들을 유가적 시각 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이인으로 변경시키거나, 그러한 인물을 대폭 새로 추가함으로써 홍만종과는 다른 이인의 계보를 만들었다. 즉 실증, 설명, 고증적 태도로 홍만종의 『해동이적』을 보충하고, 이단의 시각에서 만든 이인의 계보가 아닌 유학자적인 입장에서 새로운 이인의 계보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해동이적』 ‘보’의 특징과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 황윤석, 보(補), 유학자, 신선, 이인, 다름

1. 들어가는 말

이 글은 황윤석의 『海東異蹟(해동이적)』¹⁾이 홍만종의 『해동이적』을 補(보)한 양상을 밝히는 데 일차적 목적을 둔다.

『해동이적』은 저자 홍만종(洪萬宗, 1643-1725)이 단군으로부터 조선 중기까지의 도가인물들의 행적을 엮은 전기집이자 일종의 신선전 모음이다. 그로부터 약 백여 년 뒤 이재 황윤석(黃胤錫, 1729-1791)이 이 책을 저본으로 하여 엮은 책이 『해동이적』 ‘보’이다.

그간 황윤석에 대한 학계의 다양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해동이적』 ‘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었다. 이는 책의 앞 장에 적힌 ‘越松純陽子(월송순양자)’라는 인물을 90년대까지도 확정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이 책

1) 본고는 한국문헌실화전집 6권에 수록된 고려대 소장본 『海東異蹟(純陽子補)』를 텍스트로 한다. 이 책의 표제는 『海東異蹟』으로 홍만종본과 같다. 그러나 책을 열면 첫 장의 우측 상단에 海東異蹟上이라 적혀 있고, 그 아래쪽에 두 줄로 ‘豊山洪萬宗輯 越松純陽子補’라고 적혀있어 홍만종의 것과는 다른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 책을 홍만종의 『海東異蹟』과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海東異蹟』 ‘補’로 칭한다.

이 홍만종의 『해동이적』을 단순히 보충했을 것이라는 선입견적 접근 탓이 크다. 즉 저자 황윤석이 홍만종이 쓴 신선의 계보에 몇몇 인물을 추가하거나 또는 다소간의 내용을 추가·삭제하는 등의 작업을 했을 것이라고 여겨졌다는 말이다.

그러나 두 책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체제와 내용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황윤석본은 홍만종본과 달리 상·하권으로의 분권, 60여 편의 인물 추가, 서발문의 저자 및 양의 변화, 다양해진 주석의 위치와 내용, 대폭 늘어난 인용 자료 등의 변화를 보이며, 이러한 변화는 ‘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황윤석의 ‘보’는 단순히 분량이나 내용을 추가·삭제·재배치하는 수준을 넘어 서서 또 다른 양상과 의미를 담고 있다. 체제적인 것 뿐 아니라 대상인물을 배치하는 방식, 대상인물을 바라보는 시각 상에서도 차이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황윤석의 ‘補’는 홍만종본과 다른 황윤석의 『해동이적』 ‘보’만의 특성을 살필 수 있는 결정적 장치인 셈이다.

따라서 본고는 홍만종본과 황윤석본에서 공통으로 다루는 인물 29편²⁾을 대상으로 하여 황윤석이 『해동이적』을 보충하는 과정에서 붙인 ‘보’를 살펴본 뒤, 실제 작품의 비교분석을 통해 황윤석이 쓴 ‘보’의 양상과 의미를 확인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황윤석이 『해동이적』을 보충한 의도와 의미를 찾는 것을 이 글의 목표로 삼는다.

2. 이적의 약화로서의 ‘보’

『해동이적』 ‘보’가 『해동이적』과 같은 맥락에서 이 책을 단순히 확대하고 보충한 결과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전체적인 체제와 내용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홍만종본과 비교해 보면, 『해동이적』 ‘보’는 세 배 가량의 인물 수, 상·하권으로의 분권, 동일인물의 배열순서, 서발문의 저자 및 양, 다양해진 주석의 위치와 내용, 대폭 늘어난 인용 자료 등의 변화를 보인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홍만종의 『해동이적』은 총 32편으로 38명의 인물을 다루는데, 황윤석은 이를 확대하여 총 93편, 102명을 다룬다. 본고는 홍만종과 황윤석이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29편을 본 연구의 주 대상으로 삼았다.

표 1. 『해동이적』과 『해동이적』‘보’의 체제사항 비교

	『해동이적』	『해동이적』‘보’
서지사항	1권 1책	2권(上·下) 1책
인물 수	32편 38명	93편 102명
편차	연대순 *건국시조를 맨 앞에 위치시킴	연대순 *상권 - 정렬일가의 내용으로 구성
서·발문	홍만중 自序, 정두경 序文 송시열 跋文	서문 없음 송시열 跋文, 황윤석 自跋
평설·견해	한 칸 들여쓰기	한 칸 들여쓰기
‘補’의 사용	없음	○ (제목 앞, 추가단락 앞에 위치)
주석	내용주	내용주, 제목주, 세주
인용자료	『동국여지승람』 외 40여 편	『삼국유사』 외 80여 편, 다수의 인물에게 들은 것

이러한 체제의 변화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황윤석은 일부 인물의 제목 앞이나 추가단락 앞에 ‘보’자를 붙여 『해동이적』‘보’의 의도와 특징을 드러내는 장치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황윤석이 각 인물에 ‘보’를 붙이거나 붙이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보’의 유무에 따라 부여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곧 ‘보’의 사용은 두 본의 동이점과 관련한 중요한 장치로 보인다는 말이다.

다음은 『해동이적』‘보’의 전체인물 93편을 ‘보’의 유무와 위치로 구분한 것이다.

표 2. 『해동이적』‘보’의 전체인물에 대한 ‘보’의 사용과 위치

‘보’의 유무	‘보’의 위치	홍만중본과의 공통인물	『해동이적』‘보’에서 새롭게 추가한 인물
있음	편명 앞	보단군, 보참시선인, 보영랑술랑남랑안상, 보옥보고, 보김겸효, 보소하금귀선인, 보대세구칠, 보선도성모, 보동명왕, 보최치원, 보남추, 보장한웅, 보장도령	보정지승, 보신지, 보우탁, 보문무왕, 보처용, 보계변천신, 보장미선녀, 보연주선녀, 보을밀선인, 보안시개, 보백제궁인, 보이영간, 보이남, 보정두, 보이제신, 보강서, 보조충남, 보양사언, 보김모재선생, 보조중봉선생, 보허씨, 보설도인, 보서천객, 보한라산노인, 보지리산장자, 보태백산노인, 보권청하, 보삭낭자, 보신유한, 보신두병, 보설홍자편금자휴휴자, 보성거사, 보민응성, 보김자겸, 보주비, 보성규현, 보김백련, 보김치, 보해중서생,

‘보’의 유무	‘보’의 위치	홍만중본과의 공통인물	『해동이적』 ‘보’에서 새롭게 추가한 인물
			보박엽, 보박구, 보병자이인, 보권화산, 보오상렴, 보김집의, 보임숙영, 보신혜익, 보허호, 보허목, 보오세익, 보홍인문이인, 보물치촌이인, 보김대곡, 보정술, 보영남사인, 보송향, 보춘천구, 보정돈시, 보한강선인, 보동촌이선, 보나주정선, 보임계
	추가단락 앞	남사고(보), 박수암(보)	-
없음	-	김가기, 강감찬, 권진인, 김시습, 홍유손, 정희량, 지리산선인, 서화담, 정렴(북창고옥선생시집), 전우치, 윤군평, 이토정, 한계노승, 유형진, 광재우	서고칭

위의 표를 보면 『해동이적』 ‘보’의 전체인물 가운데 『해동이적』과의 공통인물 29편 중 14편, 그리고 새롭게 추가한 인물 63편 중 62편에 ‘보’가 붙어있다. 따라서 ‘보’가 있는 모든 편을 살펴 황윤석이 ‘보’를 붙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홍만중본과의 공통인물에 ‘보’가 붙은 14편과 달리, 새롭게 추가된 인물에 ‘보’가 붙은 62편의 경우는 비교대상이 없다. 그러므로 황윤석이 새롭게 추가한 62편 안에서 ‘보’를 붙인 이유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이는 1차적으로 홍만중이 다루지 않은 인물을 새로 추가했다는 의미로 읽힌다.³⁾

그렇다면 황윤석이 홍만중본에서 다룬 기존의 이인 29편을 다루면서, 그 중 14편에 ‘보’를 붙인 것은 어떤 이유일까. 여기에서는 두 본에서 공통으로 다루는 29편 사이의 동이점과 ‘보’의 유무를 살펴봄으로써 황윤석이 ‘보’를 붙인 의도를 가늠해본다.

3) 황윤석이 새롭게 추가한 인물 63편 중 1편, <서고칭>에만 ‘보’가 없다. 이 예외는 본고에서 밝히는 ‘보’의 규칙 중 어느 항목에도 수렴되지 않는다. 먼저, 황윤석이 ‘보’를 붙이지 않는 경우는 ‘대상인물을 다루는 시각이 홍만중과 다르지 않은 경우’이다. 그런데 대상인물을 다루는 시각이 홍만중과 같더라도 인물을 변경하거나 분리하여 새롭게 부각시키는 경우에 황윤석은 ‘보’를 붙인다. 또 새롭게 추가된 나머지 62편으로 볼 때, 황윤석이 새롭게 추가한 인물에는 ‘보’를 붙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서고칭>에는 ‘보’가 붙어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현재는 황윤석의 단순 실수 혹은 필사 과정에서 빠트렸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1) ‘보’가 있는 경우

황윤석은 『해동이적』과의 공통인물 29편 중 절반가량인 14편에 ‘보’를 붙여 두었다. 이 14편은 홍만종의 것과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

- ① 본문 내용 전반이 다른 경우
- ② 일부 내용을 삭제한 경우
- ③ 편 구성이 달라진 경우

황윤석은 홍만종과 동일한 대상인물에 대해 쓰면서도 본문을 새롭게 서술하기도 하고, 홍만종의 주관적인 생각이 드러난 일부 내용을 삭제하기도 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황윤석은 홍만종이 쓴 인물의 이인으로서의 면모에 동의하지 않거나 다르게 볼 때, 인물에 대한 내용을 다시 쓰고 ‘보’를 붙인 것으로 보인다. 또, 황윤석은 홍만종의 주관적인 생각이 드러난 일부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홍만종과 다른 시각을 드러내고 ‘보’를 붙인다.

이러한 작업을 함으로써 황윤석은 홍만종과 다른 시각을 드러내고 ‘보’를 붙인 것이다. 황윤석은 단순히 홍만종이 쓴 내용을 고쳤을 때가 아닌, 대상인물에 대해 홍만종과는 다른 시각을 가졌을 때 ‘보’를 붙인 것으로 보인다.

또 같은 내용으로 대상인물을 서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편 구성에 변화가 일어난 경우 앞에는 모두 ‘보’가 붙었다. 『해동이적』 ‘보’에서 황윤석은 홍만종본의 기존인물을 분리하여 다루거나, 새로운 인물로 변경하여 다루는 등 편 구성을 변경한 경우 ‘보’를 붙인다.

2) ‘보’가 없는 경우

‘보’가 없는 편의 대다수는 홍만종이 쓴 인물의 일대기, 작가의 견해를 보충할 수 있는 자료, 작자의 평설까지 『해동이적』의 내용을 『해동이적』 ‘보’에 그대로 옮겨 쓴 경우이다.

그런데 본문 내용이 다른데도 보를 붙이지 않은 편이 있다. 인물에 대해 서술하는 내용의 전반은 홍만종본의 것을 그대로 가져오지만, 앞이나 뒤에 문장을 더하거나 주석을 추가한 경우이다. 이 때 추가된 내용은 홍만종이 이인을 다루는 시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즉 홍만종본의 내용을 그대로 쓰면서 일부 내용을 추가하더라도 그 내용이 홍만종과 같은 시각일 때, ‘보’를 붙이지 않는다.

그런데 그 내용이 홍만종본과 다른데도 ‘보’를 붙이지 않은 <김시습>과 <정렴>이 있다. <정렴>의 경우, 전기형식을 벗어나 문집형태로 구성하여 상권에 따로 배치한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김시습>은 홍만종과 같은 시각 안에서 황윤석이 정보를 추가하거나 의론을 덧붙이고 있다. 또 <정렴>은 홍만종본과 그 내용은 다르지 않으나 집안의 문집 형태로 확대하여 구성한 것이다. 그러므로 황윤석이 본문의 내용을 달리 쓰고도 ‘보’를 붙이지 않은 것은 대상 인물을 보는 시각이 홍만종과 같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황윤석이 홍만종본과의 동일한 인물 29편을 다루면서 ‘보’를 붙인 것은 대상인물을 보는 시각이 홍만종과 다른 경우 또는 편 구성을 달리함으로써 대상인물을 새롭게 부각시키는 경우이다. 또 ‘보’를 붙이지 않은 것은 대상 인물에 대한 두 작자의 시각의 차이가 없는 경우이다. 황윤석은 단순히 홍만종이 쓴 내용을 고쳤을 때가 아닌, 대상인물에 대해 홍만종과는 다른 시각을 가졌을 때 ‘보’를 붙인 것이다.

3. ‘補’의 유무에 따른 작품의 실제

앞 장에서 두 본에서 다루는 동일인물에 대한 ‘보’의 사용을 살펴본 결과, 황윤석은 홍만종본과 편 구성을 달리하거나 홍만종과 대상인물에 대한 시각차가 있을 때 ‘보’를 붙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것은 황윤석이 ‘보’를 통해 드러내는 시각차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황윤석이 대상인물에 대한 홍만종과의 시각차로 인해 ‘보’를 붙인 11편의 내용을 살펴, 홍만종과 황윤석이 각각 어떤 시각으로 대상인물을 다루고 있는지 비교해보았다. 거기에서 드러나는 시각차가 바로 황윤석이 『해동이적』을 보충한 이유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표 3. 두 본의 동일한 인물에 대한 홍만종과 황윤석의 시각

인물	(ㄱ)이인, 이적의 유형		(ㄴ)‘보’의 목적
	『해동이적』	『해동이적』‘보’	
단군	신선	우리 민족의 원형	불교적 이인·이적에 대한 비판
동명왕	신선	금와의 아들, 위정자	"
사선	신선	자유분방한 인물, 화랑의 계보	도가적 방술·방사로서 신선으로 다루는 데 대한 비판

인물	(가)이인, 이적의 유형		(나)‘보’의 목적
	『해동이적』	『해동이적』‘보’	
옥보고	신선	거문고 명인, 금도의 계보	뛰어난 특기를 보이는 이인을 신선화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
대세구칠	이인	속세를 떠난 자유분방한 인물들	"
최치원	신선	불우한 문인	"
참시	신선	가야금 명인	"
남추	신선	뛰어난 문재를 지닌 인물	"
남사고	이인	예언가	불교적 이인·이적에 대한 비판
박지화	이인	유학자	뛰어난 특기를 보이는 이인을 신선화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
장생	신선	장수한 문인	도가적 방술·방사로서 신선으로 다루는 데 대한 비판

위의 표에서와 같이 흥만종이 다루는 인물들은 대체로 신선으로 규정된다. 그들이 보이는 이적은 결국 신선화 되는 것이다. 이와 달리 황윤석은 이 인물들을 민족의 원형, 위정자, 분방한 화랑, 불우한 문인 등으로 다양하게 다룬다. 나아가 그를 통해 황윤석은 흥만종이 인물을 다루는 시각을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나)에서와 같이 화랑을 도가적 신선으로 다루는 것에 대해 비판하거나, 불우한 문인을 신선화하는 데 대해 비판하거나, 민족의 원형을 불교적으로 신선화하여 다루는 것을 비판하는 등이다. 그 결과 황윤석이 견지하는 흥만종의 태도에 비판은 다음의 세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불교적 이인·이승의 신선화에 대한 비판, 도가적 방술·방사로서 신선으로 다루는 데 대한 비판, 뛰어난 특기를 보이는 이인을 신선화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이 바로 그것이다.⁴⁾

본 장에서는 황윤석이 ‘보’를 쓴 인물 중 불교적 이인·이승의 신선화에 대한 비판이 담긴 단군, 도가적 방술·방사의 신선화에 대한 비판이 드러나는 장생, 이인의 신선화에 대한 비판이 담긴 인물로 옥보고를 선정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보’를 붙이지 않은 인물 중 유일하게 두 편의 내용이 다른 김시습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황윤석이 ‘보’에 담은 의미를 밝힘으로써 황윤석이 『해동이적』을 보충한 의도와 의미 또한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4) 각 인물을 비교하여 이러한 주제를 도출한 것은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 각 인물의 ‘보’에 드러난 가장 두드러진 특성에 따라 나누었을 뿐, 황윤석이 한 인물을 통해 꼭 하나의 의견만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1) 홍만중본 『海東異蹟』에 대한 비판으로서: ‘補’가 있는 예

(1) 불가적 이인·이승의 신신화에 대한 비판: <補檀君>

홍만중은 <단군>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쓴다. 1단락은 홍만중이 기존의 자료를 인용하여 단군의 일대기를 재구성한 것으로, 단군의 고귀한 출생, 고조선의 건국과 재위기, 단군과 관련한 유적을 다루고 있다. 2단락은 단군에 대한 편자의 의론부로, 『여지승람』과 『동사보감』을 보충자료로 인용하여 1단락에 제시한 단군의 재위기간에 대해 따져보고 단군의 이적을 정의한다.

홍만중은 단군을 우리나라 최초의 군장으로 소개하고 ‘사람이라고 할 수도,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인물로 규정한다. ‘영이한 탄생과 죽음’을 거치고 ‘인군으로서 1508세를 산’ 유일무이한 행적 때문이다. 홍만중은 1단락을 통해 단군의 영이한 탄생과 죽음에 대해, 2단락을 통해 인군으로서 1508세를 산 단군의 이적에 대해 제시한다.

홍만중은 『고기』를 인용한 『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을 발췌한다. 출생과정, 고조선 건국, 산신이 되는 죽음으로 이어지는 단군의 일대기는 고귀한 혈통으로 비정상적으로 출생하여 일정기간 동안 통치하다가 권좌에서 물러나 이례적인 죽음을 맞는, 전형적인 영웅의 일대기의 구조를 보인다. 이어 홍만중은 단군이 하늘에 제사지낸 장소로 참성단을 소개함으로써 그가 하늘의 자손이라는 계통의 신성성을 강조한다.

2단락에서는 앞에 제시한 단군의 재위기간에 주목한다. 앞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단군의 재위 기간만도 1200여년이며, 1508세의 수명을 누리고 산신이 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2단락에서 홍만중은 이에 대해 『여지승람』과 『동사보감』의 내용을 인용하여 단군의 재위기간을 다시 한 번 따져본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단군이 재위한 기간이 적어도 천년이 넘는 것을 밝힌다. 따라서 1단락에 제시한 단군의 생존기간 또한 거짓이 아님을 보인 것이다.

홍만중이 단군의 장수를 특별하게 여기는 까닭은 단군이 신의 자손인 동시에 또 우리나라의 군장이기 때문이다. 홍만중은 백여 년을 재위한 제왕들의 이름과, 수양을 통해 수명을 연장하고 천여 년을 산 필부들의 이름을 나열한다. 이를 통해 단군이 천오백년이 넘는 수명을 누린 사람으로서 인군인 경우는 단군이 유일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홍만중이 글의 말미에 ‘사람이라고 할 수도,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인물로 본 것은 천손이라는 점, 그리고 1508세를 살았다는 점 때문

이다. 그리고 이러한 단군의 이적은 홍만중이 단군을 복희씨⁵⁾의 류로, 동명왕을 현원씨의 류로 짝지어 생각함으로써 다시 한 번 부각된다. 중국의 전설상의 시조인 복희씨와 단군, 현원씨와 동명왕⁶⁾을 비교한 것이다.

홍만중은 단군을 신의 자손으로 태어나 인간을 다스리는 군장으로서 유일하게 1508세를 살 수 있었던 신이한 인물로 본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연원이라는 점에서 단군이라는 인물이 가지는 신화적 상징을 복희씨와 같은 류로 봄으로써 인간의 유한한 생명을 넘어선 신선의 계보에 둔다.

황윤석은 <補檀君>을 두 단락으로 서술한다. 황윤석 또한 1단락에는 기존의 자료를 인용하여 단군의 일대기를 재구성하였는데, 홍만중의 <단군>과 같은 구조로 전개된다. 1단락에서는 앞에서 홍만중이 신의 자손이자 1508세를 산 인군으로 단군을 본 것과 달리 황윤석은 ‘단씨가 대대로 전’해진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부여한 보통명사의 칭호로 본다.⁷⁾

황윤석이 단군의 수명에 대한 설들을 제시하고 이는 단씨가 대대로 전하여 내려온 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데, 이는 단군이라는 이름이 단씨 왕족을 칭하는 보통명사임을 밝히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단군의 고유명사를 왕검 혹은 왕협이라고 소개한 것은 단씨의 세계가 이어지는 1908년 동안 각각의 고유명사를 지닌 단군들이 여럿일 수 있다는 것을 밝힌 셈이다.

이후 나열한 단군묘, 승령전, 삼성사⁸⁾, 단군대 및 단군굴, 참성단과 삼량성

- 5) 복희씨는 중국의 삼황(三皇) 중 하나로, 복희씨의 재위기간은 1백15년이었으며 뱀의 몸에 사람 머리[蛇身人首]를 한 반인반수의 형상이었다고 전해진다. 복희는 사람이라는 것일까 사람이 아니라는 것일까. 중국에서는 문명의 시원에 있는 인물로 복희씨를 말한다. 다시 말해, 인간인가, 실제로 존재했는가의 문제를 넘어서 있는 인물이라는 말이다. 그것은 복희씨가 그 민족 원형적 의미를 드러내는 상징적 존재라고 보기 때문에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규보(李奎報)의 <동명왕편명서(東明王篇竝序)>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잘 드러난다. 국가의 창시와 관련해서는 기괴하고 허탄하게 볼 것이 아니라 신이하게 보고 후인에게 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6) 홍만중은 동명왕이 최후에 기린마를 타고 승천한 것과 현원씨의 최후가 닭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시선(李時善, 1625~1715)의 『역대사선(歷代史選)』 참조. <한무기(漢武紀)>에 따르면, “황제의 정(鼎)이 완성되자 용(龍)이 호수로 내려왔다. 신하들이 황제현원씨를 맞이하니, 황제현원씨가 용에 올라탔다. 여러 신하와 후궁(後宮) 10여 명이 황제현원씨를 뒤따랐으며, 용에 올라타지 못한 소신(小臣)들은 모두 용의 수염에 매달렸다. 황제현원씨가 자신의 활(弓)을 떨어뜨려 주었다. 세상에서는 이곳을 정호(鼎湖)라고 불렀으며, 그 활을 오호(烏號)라고 불렀다.”고 한다.
- 7) 예컨대 이것은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 끌려간 도자기 명가 15대를 심수관가로 총칭하는 방식과 같다. 심수관가는 가문의 상징적 요소를 계승하는 의미로 13대부터 습명(襲名: 선대의 이름을 계승함)하고 있으며 이후 심수관은 15대를 총칭하게 되었다.
- 8) 황윤석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삼성사(三聖祠)의 내용을 발췌한다. 그런데 단군이 한 개인이 아닌 단씨 왕족임을 강조하기 위해 환인을 단인으로, 환웅을 단웅으로 고쳐

등의 유적이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한다. 앞에서 홍만중은 참성단 하나만을 언급하여 단군이 하늘에서 온 고귀한 혈통임을 강조하고자 했다. 그러나 황윤석은 대를 이어 인군으로서 종교와 정치를 담당했던 단군 일가, 혹은 복수의 단군의 유적이 두루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황윤석이 글의 서두와 말미에서 단군을 태초의 신선인으로 언급한 것은 왜일까.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황윤석은 단군이 신선이라는 설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제시할 뿐 궁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태도로 볼 때 황윤석 또한 단군의 존재가 우리 민족의 원형으로서 가지는 상징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보인다. 우리 민족의 시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홍만중의 글에 보이는 신비롭고 초현실적인 이적에 대해서는 유가적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접근하여 고증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고증할만한 자료들은 불교에 물든 자료가 아니어야 한다는 논리가 2단락에 이어지는 것이다.

황윤석은 단군의 존재에 대한 논의를 더는 진행하지 않은 채 2단락에서는 단군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인용 자료의 허탄함을 지적한다. 홍만중은 『고기』를 인용한 『동국여지승람』, 황윤석은 『삼한고기』를 인용한 『삼국유사』의 내용을 발췌하여 단군의 일대기를 엮는다. 『고기』와 『삼한고기』는 같은 자료로 홍만중과 황윤석 당대에는 이미 없었다. 그런데 홍만중은 가까운 조선시대의 자료인 『동국여지승람』을 인용하였고 오히려 후대의 황윤석은 고려시대의 자료인 『삼국유사』에서 발췌하였다. 황윤석은 『삼한고기』를 인용한 책 중 당대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 된 자료, 즉 『삼한고기』에 가장 가까울 것으로 생각되는 자료를 찾아 인용하고자 것이다.

황윤석이 인용한 『삼국유사』뿐 아니라 『삼한고기』까지, 우리 민족의 시원을 기록하고 있는 초기의 자료는 불교의 자료이다. 황윤석은 『여지승람』까지도 이 불교의 자료를 인용한 것을 비판하고 있다. 『여지승람』은 각 지역의 역사, 풍속 등을 기록한 관찬지리서로, 위정자가 국가를 통치하는 데에 꼭 필요한 책이다. 따라서 유학자의 책이며 유교문화의 발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책이다. 그러므로 황윤석은 『여지승람』을 편찬한 사가들조차도 『고기』를 인용할 정도로 불교에 물든 세태를 한탄하는 것이다. 이는 단군의 신이함을 드러내기 위해 『고기』와 같은 허탄한 자료를 끌어다 쓴 홍만중을 지적하는 것으로도 읽힌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황윤석은 우리 동방이 단씨를 숭상하던 것과 기씨의 가

쓰고 본래 내용을 주석으로 처리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42권, <黃海道>, 한국고전종합DB. “三聖祠名九月山 卽桓因檀雄檀君之祠 春秋降香祝致祭 又水旱祈禱禱應”

르침이 땅을 쓸어낸 듯이 없어졌다고 말하는데, 홍만중이 이에 대해 언급한 태도와 확연히 다르다. 앞서 홍만중은 기자가 조선에 봉해진 일을 간략히 언급한다. 이는 단군이 기자를 막아서지 않고 피해서 도읍을 옮긴 뒤 아사달산으로 들어갔으나 정통성은 단군에게 있는 것으로 읽힌다. 그러나 황윤석이 제시한 내용을 보면, 기자가 봉해짐으로써 유학의 가르침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옹호한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내용에서 기자의 가르침을 통해 ‘공자도 뗏목을 타고 가 살고 싶은’ 나라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단군조선 이후 기자가 조선에 봉해진 것과 이어지는 논어의 내용은, 유가의 가르침이 조선에 들어온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진한 이후로는 기자의 가르침이 땅을 쓸어낸 듯이 없어지는데, 이는 불행히도 불교의 유입 때문이라고 황윤석은 설명한다. 황윤석은 유학의 시원으로 기자조선에 정통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황윤석은 불교를 경계하지 않은 탓에 불법이 크게 일어나 사가들 또한 불교에 미혹되고, 유교 또한 멀했으며 도교 일파도 불교에 섞여버렸다고 말한다. 그러한 문제의 단초가 된 것이 바로 『고기』의 기록이며, 그것을 인용한 『삼국유사』이다. 나아가 황윤석은 거기에 전염된 사가들까지 비판한다.

단군은 역사시대의 왕들을 넘어선 시대의 인물이다. 황윤석은 단군이 상징하는 우리 민족의 연원으로서의 신성함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홍만중이 단군의 존재를 받아들임으로써 밝힐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신이함으로 다루었다면, 황윤석은 단군의 존재자체는 인정하지만 밝힐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허탄하게 여긴다.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허탄함이 불교에서 나온 자료 때문임을 비판하면서 ‘보’를 붙인 것이다.

(2) 이인의 신선화에 대한 비판: <補玉寶高>

홍만중은 <옥보고>를 두 단락으로 나누어 서술한다. 1단락은 편자가 『동국여지승람』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옥보고가 거문고 음악을 통해 선도를 터득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2단락에는 최자(崔滋, 1186-1260)의 『보한집』 가운데 옥부선인에 관한 시 일화를 인용하고 옥부선인과 옥보고를 같은 인물로 비정한다. 이를 통해 홍만중은 1단락에서 언급한 옥보고의 신선적 경지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그런 점에서 2단락은 보충자료이면서 홍만중의 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단락에서 홍만중이 제시하는 옥보고의 행적은 간략하지만 분명하다. 옥보

고가 거문고 음악을 통해 신선의 도를 터득했다는 것이다. 옥보고는 신분제사회였던 신라에서 6두품 귀족에 속하는 사찬의 아들로 소개된다. 그러나 지리산 운상원으로 들어가 오십년 동안 거문고를 공부하는 행적은 귀족신분에서 추구하는 사회적 입신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즉 옥보고는 세상의 가치기준을 초월하여 일생을 오직 거문고에 몰두한 것으로 읽힌다. 그 결과 그는 신곡[新調] 서른 곡을 지었고, 그 곡을 연주하면 검은 학이 날아와 춤을 추었다고 한다.

그가 연주하는 거문고 음악에 검은 학[玄鶴]이 날아와 춤을 추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진(晉)나라 최표(崔豹)의 『고금주(古今注)』 〈조수(鳥獸)〉 편을 보면 ‘학은 천 년 뒤에는 푸른색으로 변하고 또 이천 년 뒤에는 흑색으로 변하니 이른바 현학이다.’⁹⁾라는 말이 나온다. 이로부터 검은 학은 장수를 비유하고, 나아가 도사를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옥보고의 연주에 검은 학이 날아와 춤을 추었다는 것은 세상에 전해지는 ‘옥보고가 신선의 도를 터득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해, 옥보고의 거문고 음악은 단순히 음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신선이 되도록 만드는 경지에 이르렀던 것이다.

홍만중은 2단락에서 최자(崔滋, 1186-1260)의 『보한집』 중 옥부선인의 일화를 보충자료로 인용하는데, 옥부선인과 옥보고를 같은 인물로 봄으로써 옥보고의 신선적 경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런데 이때 홍만중은 의도적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한다.

동도(東都)는 본래 신라 땅이다. 옛날에 사선이 있어 각각 천여 명의 무리를 거느렸고 가법이 성행했다. 또 옥부선인이라는 분이 있어 처음 백곡의 가락을 지었다. 지금 고려의 복야 민가거(閔可舉, ?-?)가 그 오묘함을 전수받아 터득하였다. 일찍이 하루는 홀로앉아 거문고를 타고 있는데 쌍학이 날아와 맴돌았다. 그로 인해 특별히 곡조를 짓고, 『월성(경주)에 신선의 자취는 멀고, 옥부의 음악소리는 희미하네. 쌍학이 날아오이 어찌 이리 늦는가. 내 장차 너를 따라 돌아가려 한다.』고 하였다.¹⁰⁾(『보한집』)

9) 『古今注』, 〈鳥獸〉: 鶴千歲則變蒼 又二千歲變黑 所謂玄鶴也

10) 崔滋, 『補閑集』(보고사, 2012, 120쪽): 東都本新羅 古有四仙 各領徒千餘人 歌法盛行 又有玉府仙人 始製曲調數百 本朝閔僕射可舉傳得其妙 嘗一日獨坐彈琴 有雙鶴來翔 因作別調云 月城仙迹遠 玉府樂聲微 雙鶴來何晚 吾將伴汝歸

동도(東都)는 본래 신라 땅이다. 옛날에 옥부선인이라는 분이 있어 처음 백곡의 가락을 지었다. 지금 고려의 북야 민가거(閔可舉, ?-?)가 그 오묘함을 전수받아 터득하였다. 일찍이 하루는 홀로앉아 거문고를 타고 있는데 쌍학이 날아와 맴돌았다. 그로 인해 특별히 곡조를 짓고, 『월성(경주)에 신선의 자취는 멀고, 옥부의 음악소리는 희미하네. 쌍학이 날아오미 어찌 이리 늦는가. 내 장차 너를 따라 돌아가려 한다.』고 하였다¹¹⁾(『해동이적』<옥보고>)

『보한집』에 실린 이 시화는 옛날 신라에 있었던 사선과 옥부선인에 대해 말한다. 그러나 홍만중은 그 내용 가운데 ‘사선이 있었는데 각각 천여 명을 거느렸으며 가법이 성행했다.[有四仙 各領徒千餘人 歌法盛行]’는 내용을 삭제한다. 그럼으로써 뒤에 이어지는 시 속의 ‘신선[仙]’ 또한 사선이 아니라 옥부선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읽히게 한다. 즉 홍만중은 신라에 사선과 옥부선인이 있었다는 내용의 시 일화를 옥부선인의 얘기로 집중시킨다. 그리고 글의 말미에 옥부선인과 옥보고를 같은 인물로 비정함으로써 옥보고가 이룬 음악의 성과를 확장하고 그가 도달한 경지가 신선이 되는 도를 터득하는 것임을 다시 강조한다. 즉 홍만중은 자료의 적극적 변조를 통해 옥보고를 거문고를 통해 선도를 터득한 인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황윤석의 <보옥보고>는 홍만중과 서사단락과 전개순서가 동일하다. 다만 황윤석은 그 사이에 새로운 단락을 넣어 옥보고의 행적을 보충하고 있다. 즉 황윤석은 홍만중의 <옥보고>와 같은 행적을 쓰고 있지만, 각 단락마다 새로운 고증자료를 덧붙이면서 옥보고의 행적에 대해 홍만중과는 다른 해석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앞에서 홍만중은 『승람』을 인용하여 옥보고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인물의 행적을 소략하게 처리하면서 거문고를 통해 선도를 터득하게 되는 과정에만 집중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그가 신선의 도를 터득했다는 점을 더욱 부각시키는 효과를 얻는다.

그에 반해 황윤석은 『삼국사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승람』의 자료를 두루 써서 사람들에게 선도로까지 일컬어지는 거문고 명인(名人)의 행적을 밝히고자 한다. 그러한 두 본의 특징은 두 본의 내용을 간략히 하여 도표로 비교해보면 쉽게 드러난다.

11) 『海東異蹟』<玉寶高>: 東部本新羅 古有玉府僊人 始制曲調百 本朝閔僕射可舉傳得其妙 嘗一日獨坐彈琴 有雙鶴來翔 因作別調曰 月城僊跡遠 玉府樂聲微 雙鶴來何晚 吾將伴汝歸

표 4. <옥보고>와 <보옥보고>의 서사단락 비교

<옥보고>	<보옥보고>
1. ① 옥보고는 사찬 옥공영의 아들이다.(출신)	① 옥보고는 사찬 옥공영의 아들이다.(출신)
	② 진흥왕(재위 540~576) 때 국상(國相) 왕산악(王山嶽, ?-?)이 중국에서 온 칠현금을 고쳐 여섯 줄로 만들고 백여 곡을 지어 연주하였다.
② 지리산 운상원에 들어가 거문고를 공부한 지 오십년 만에 스스로 새로운 가락으로 삼십 곡을 지어 연주했다. 그러자 검은 학이 날아와서 춤을 추었다.	③ 경덕왕(재위 742-765) 때 옥보고는 왕산악이 지은 악보를 가지고 지리산 운상원에 들어가 거문고곡을 공부한 지 오십년 만에 새 곡조인 상원·중원·하원·남해 등 삼십 곡을 지어 연주했다. 그러자 검은 학이 날아와서 춤을 추었다. 【혹자는 이것이 왕산악의 일이라 한다.】
	④ 옥보고가 그것을 속명득에게 전하니, 속명득은 이를 귀금에게 전하였고, 귀금 또한 지리산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⑤ 경문왕(재위 861-875) 때 귀금은 표풍 등 3곡을 (안장과 청장에게) 모두 전수해 주었다.
	⑥ 안장은 그의 아들 극중에게 전하고, 극중은 또 일곱 곡을 지었으며, 그 후에는 거문고를 자신의 직업으로 삼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③ 세상에서는 옥보고가 신선의 도를 터득했다고 전해진다.	⑧ 세상에는 옥보고가 거문고를 배워 선도를 터득했다고 전해진다.
2. ④ 옥부선인은 옥보고이다.	

위의 표를 참고하여 옥보고의 행적을 중심으로 <보옥보고>를 살펴보겠다. 황윤석은 ②에 왕산악이라는 재상이 고구려에 처음 들어온 칠현금을 여섯 줄로 고쳐 만들고 백여 곡을 지어 연주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이는 옥보고 이전에 있었던 거문고 음악의 태동을 제시함으로써 신선으로까지 여겨지는 옥보고가 절로 탄생한 것이 아님을 밝힌 것이다.

이 때 왕산악이라는 인물은 국상(國相)이다. 또 왕산악의 동기가 ‘고구려 사람들이 연주하는 법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내용은 왕산악이 칠현금을 개조하고 백여 곡을 지은 것은 예술적 행위보다 정치적 행위가 우선된 것으로 읽힌다. 중세시대에 예악을 정비하는 것은 모든 문명국에서 율령을 통해 제도나 행정을 정비한 뒤에 행하는 최종 단계였다. 따라서 국상(國相)이었던 왕산악이 악기를 개조하고 악곡을 처음 지은 것은 예악을 정비하는 과정에서의 정치적 행위로 보아도 무방하다.

옥보고는 왕산악의 악보를 이어받은 인물이다. ④에서 황윤석은 이후 옥보고가 ‘왕산악이 지은 백여 곡의 악보를 가지고’ 지리산 운상원에 들어갔다고 말한다. 이는 출처인 『三國史記』에는 없는 내용으로 황윤석이 이 글을 엮는 과정에서 삽입한 것이다.

옥보고는 지리산 운상원에 들어가 거문고를 공부한 지 오십년 만에 스스로 새 곡조 삼십 곡을 지어 연주했다. 그러자 검은 학이 날아와서 춤을 추었으니, 그로 인해 이 악기를 ‘현학금’ 또는 ‘현금’이라고 이름하였다. 옥보고가 그것을 속명득에게 전하니, 속명득은 이를 귀금선생에게 전하였고, 귀금선생 또한 지리산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¹²⁾(『삼국사기』「악지」)

옥보고는 그 악보를 가지고 지리산 운상원에 들어가 거문고곡을 공부한 지 오십년 만에 새 곡조인 상원·중원·하원·남해 등 삼십 곡을 지어 연주했다. 그러자 검은 학이 날아와서 춤을 추었으니, 그로 인해 이 악기를 ‘현학금’ 또는 ‘현금’이라고 이름하였다. 옥보고가 그것을 속명득에게 전하니, 속명득은 이를 귀금에게 전하였고, 귀금 또한 지리산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¹³⁾(<보옥보고>)

황윤석이 옥보고의 행적에 왕산악의 ‘악보를 가지고’ 갔다는 내용을 삽입한 것은 우리나라 거문고 음악의 계보를 만들어내고자 한 의도로 보인다. 즉 옥보고가 왕산악의 악보를 가지고 입산함으로써, 거문고에 몰두한 행적이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왕산악이 국가의 예악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만든 거문고 음악을 이어받은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황윤석은 옥보고를 우리나라 거문고음악의 계통을 잇는 주자로 처리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 과정이 거문고 음악의 계보 찾기인 것은 이어지는 ④-⑥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옥보고의 거문고를 전승한 속명득과 귀금까지 입산하여 세상으로 나오지 않자 금도가 끊어질까 우려한 경문왕은 관리를 보내면서까지 그 음악을 배워 전승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④-⑥은 그들이 전승하던 음

12) 『三國史記』卷第三十二, 「樂志」: 玉寶高 入地理山雲上院 學琴五十年 自製新調三十曲 傳之續命得 得傳之貴金先生 先生亦入地理山 不出

13) 『海東異蹟』‘補’, <補玉寶高>: 玉寶高 得其譜 入智異山雲上院 學操五十年 製新調上院 中院下院南海等三十曲 傳之續命得 得傳之貴金 貴金亦入智異山 不出

악이 하나의 도를 이루었으며,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몰두나 수양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행위임을 반증한다.

이처럼 <보옥보고>가 거문고음악의 전승의 계보를 찾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신라의 예악을 정비하는 과정인 것처럼 보여주는 것은 옥보고에서 끝나지 않는다. 다음의 표처럼 그 계보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음악은 다음과 같은 후발 주자들에게 전승된다.

표 5. 신라의 예악정비 과정

왕산악 → 옥보고 → 속명득 → 귀금 → 안장·청장 → 극중(안장의 아들)

왕산악의 악보를 계승한 옥보고의 음악이 속명득에게, 속명득에서 다시 귀금에게, 또 안장과 청장에게, 안장에게서 그의 아들 극중으로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옥보고가 거문고 음악을 통해 선도를 터득했다는 ⑧의 내용은 홍만중본의 ③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그 태도는 분명히 다르다. 홍만중은 옥보고의 행적을 짧게 쓰고 선도를 터득한 것을 강조하는 데 반해, 황윤석은 오묘하여 신선으로까지 여겨질 수 있는 옥보고의 행적을 꼼꼼히 보충한 후 ⑧의 내용을 후일 담처럼 처리함으로써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간략히 추가한 듯한 인상을 준다.

이로 볼 때, 황윤석은 예인 뿐 아니라 특정 분야에 몰두하여 특기를 보이는 이인을 신선화하는 데 대하여 비판함을 알 수 있다. 황윤석의 <보옥보고>는 예인의 몰두와 그 재능이 극단에 이르면 신선으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자 보를 쓴 것이다.

(3) 도가적 방술·방사의 신선화에 대한 비판: <補蔣道令>

홍만중은 <蔣生>을 크게 두 단락으로 구성한다. 1단락에는 허균(許筠, 1569-1618)의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에 수록된 <蔣生傳>을 그대로 옮겨 본문으로 쓰고, 2단락에 홍만중 자신의 의론을 덧붙인다. 1단락은 인물의 이름과 가계 소개, 인물의 용모와 성격, 인물의 이적을 통한 신선의 면모를 제시한다.

<장생>은 먼저 삶의 이력이나 결식하는 처지에 비해 거침없고 자유분방한 장생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모습은 특이하고 남다르지만 현실 속에 있을 법하다. 그러나 잇따라 인물의 이적을 제시함으로써 현실세계의 남다름을 넘어선 이인으로서의 면모, 신선의 면모를 보여준다.

장생이 여종의 봉미를 찾아주는 일화는 장생이 얇은 술수를 부리는 단계를 초월한 이인이라는 것을 보일 뿐 아니라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차원의 신선임을 나타낸다. 이어 그가 죽어 시해(尸解: 형체를 버리고 신선이 된다는 도가의 말)하고 친구 홍세희에게 나타나는 일화를 통해 그의 신선적 면모를 재차 확인시킨다.

위의 일화가 보여주는 바는 허균의 의론에 집약된다. 이는 장생을 보는 허균의 시각이다. 허균은 ‘젊은 날에 유험들과 가까이 어울렸고, 그와도 함께 해학을 즐기며 매우 친했으니 그의 재주를 모두 보았다’고 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옛날에 이른바 검선의 부류일까.’라고 덧붙임으로써 허균은 장생을 유험¹⁴⁾이자 검선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허균이 말한 장생의 유험으로서의 면모와 검선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홍만중이 허균의 <장생전> 전제한 것은 장생을 유험이자 검선으로 보는 허균의 시각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홍만중은 여기에 이어 다음과 같은 의론을 덧붙여 쓰고 있다.

㉠감사 홍명원(洪命元, 1573-1623)은 항상 장도령(蔣都令)이란 자를 일컬어 청파에 살면서 기이한 일을 많이 했다고 했다. 처후(홍처후: 홍명원의 아들, 1599-1673)가 곁에서 익히 들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그 또한 언제나 장도령에 대해 말했다.

㉡내가 생각하건데 ‘도령’이란 것은 속어로 아직 장가가지 않았음을 이른다. 장생은 민가의 딸을 아내로 삼았으나 가정을 이루지 못했으니, 이른바 ‘장도령’이란 자가 장생임이 분명하다.

㉠에서 홍명원과 홍처후가 기이한 일을 많이 하는 장도령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으로 볼 때, 홍만중(1643-1725)이 자신과 생몰년대가 겹치는 홍처후(1599-1673)에게서 장도령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를 보면 홍만중 시대에 장씨 성을 가진 이인의 이야기가 적어도 장생이야기, 장도령이야기가 있었던 것이다. 명칭은 다르지만 두 이야기 중 이적에 관한 내용은 겹쳤을 것이다. 따라서 홍만중은 장도령을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가

14) 장생의 자유분방하고 격의 없는 성격과,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모습은 협의 특징이다. 이옥의 『장복선전』에서는 광문의 예를 제시하여 ‘협’의 의미를 규정하였는데, “협객에게 있어 소중한 바는 능히 재물을 가볍게 여겨 남에게 잘 베풀고, 의기를 숭상하여 남의 곤란하고 다급한 처지를 주선해 주되 보답을 바라지 않는 데 있다.”고 하였다.

정을 이루지 않은 사람을 ‘도령’이라고 부른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두 사람이 같은 인물임을 고증하고 있다.

<補蔣道壽>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인물의 이름과 가계, 외모와 성격, 이적을 다루고 있고 흥만종본과 나란히 전개된다.

황윤석은 제목에 걸맞게 머리모양으로 그의 외모를 소개한 뒤, 그의 자유분방한 성격을 보여준다. 그는 메인 데 없이 무시(無時)로 일상의 공간을 벗어났다 돌아오곤 했는데, 다녀온 곳이 ‘금강산’이다. 당대에 금강산은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따라서 그가 금강산을 훌쩍 다녀온다는 것은 그의 자유로움과 남다름을 달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⁵⁾

또 그가 노소귀천 없이 너나들이 했다는 것으로써 현실의 질서나 예의를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는 까닭이 여기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데, 이는 앞서 흥만종의 장생이 보인 모습을 통해 추측할 수 있다. 앞에서 장생 또한 예의나 도리와는 무관해 보였지만 기생들과도 잘 어울리고, 거지 아이들도 매일 따라다녔으며, 여종, 흥세희와 같은 친구가 있었던 것은 장생이 아낌없이 베풀고 보답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도령 또한 누구에게나 환심을 산 이유는 장생과 같이 불특정의 사람에게 자기 이익을 챙기지 않고 나누는 협으로서의 태도를 보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 단락에는 장도령의 이적이 제시된다.

㉞어느 날 책 한 권을 가지고 와서 정씨(鄭氏)에게 주며 “너희 집 안에 대대로 내려오던 물건이다.” 하였다. 정씨가 “아니다.” 하자, “네 선조 정순봉(鄭順朋, 1484-1548)씨가 살아 계실 때에 내가 일찍이 빌려갔던 것이다.” 하였다. 그 사람이 오래된 서책을 찬찬히 살펴보니, 정말 그러했다.

㉞숙종(肅宗, 재위 1674-1720) 때 어떤 이와 비로봉 위에서 함께 노닐다가, 蔣道壽이 시를 지었는데 그 시는 이러하다. ‘삼세의 말해도 술잔 속에 있듯 작거늘 좁쌀 한 알 같은 덧없는 인생 그 속에 떠다니네.[三塵渤海杯中小 一粟乾坤鏡裡浮]’ 근래에는 그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한다.

㉞에서 장도령이 책을 빌린 정순봉¹⁶⁾의 생몰년대는 1484년에서 1548년이

15) 금강산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는 신선세계를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 전체에서는 금강산이 현실너머의 신선세계라는 느낌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다. 그렇다면 숙종 재위(1674-1720)까지 장도령은 약 이백여 년을 산 사람이 된다. 이 일화는 장도령이 특이하게 장수한 이적을 다루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¹⁷⁾

또 ㉔에서 그가 숙종조에 지었다는 시는 현실세계의 유한함과 속세를 초월하려는 의지를 동시에 담고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대단히 이인적인 면모라고는 볼 수 없다. 그저 오래 산 문인의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앞서 보이는 장도령의 외모와 성격은 홍만종본의 장생과 유사점이 보이는데 반해 이어지는 ㉕~㉖에서 제시되는 이인의 면모에는 장생이 보인 신선으로서의 이적이 드러나지 않는다. 황윤석본의 장도령은 그저 특이하고 자유로우며 굉장히 오래 산 사람이다. 그 또한 특별한 일이라고는 해도 <장생>에 나타나는 신선의 면모와 비교해보면 이인으로서의 모습은 무척 약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황윤석은 장생을 유희으로 본 시각에는 동의했으나, 검선으로 본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인물의 이적을 다르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비판한다.

요컨대 황윤석은 현실에서 가능한 이적을 보인 인물, 문인으로서 오래 산 이인으로만 장도령을 다룬다. 그럼으로써 홍만종본에 보이는 장생의 이인·신선의 면모를 덜어낸다. 그것은 장도령을 유학자가 수용할 수 있는 이적 안에서만 다룬다는 뜻이다. 따라서 황윤석의 <보장도령>의 ‘보’는 홍만종이 쓴 도술, 시해와 같은 장생의 이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붙인 것임을 알 수 있다.

16) 정순봉(鄭順朋, 1484-1548)은 『해동이적』에도 이인으로 올라있는 정렴·정작의 아버지이다. 황윤석이 정렴 일가의 내용만으로 상권을 구성하고, 정렴을 첫머리에 배치한 것은 대단히 특별한 일이다. 물론 필사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있는 그대로의 구성을 인정한다면 황윤석은 이 집안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나 애정을 가진 것으로 짐작된다.

17) 이렇게 특이하게 장수한 인물로는 정약용의 <조신선전>의 대상인물인 조신선이 있다. 조신선은 탐욕스러운 책재로 1756부터 1820년까지 사오십대의 외모로 목격된다. 정약용은 조신선이 죽히 백여 살이 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외사씨의 말을 빌어 ‘도가(道家)에서는 마음을 깨끗이 하고 욕심을 적게 갖는 것을 신선이 되는 근본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조신선은 욕심이 많으면서도 이처럼 늙지 않았으니, 어쩌면 말세에는 신선도 세속을 벗어날 수 없어서인가?’라고 묻는다. 이는 조신선이 지독히 탐욕스러웠는데도, 오래 사는 것으로써 신선으로 불리는 데 대한 비판이며, 나아가 도가가 추구하는 비승(飛昇)·신선추구에 대해서까지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황윤석이 장도령의 이적을 장수한 일화로만 제시한 것 또한 특이한 일 정도로 다루려 했거나 심지어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본다.

2) 홍만중본 『海東異蹟』에 대한 동의 및 강화로서: ‘補’가 없는 예

(1) 유학자적인 면모 강조: <金時習>

홍만중은 <金時習>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 서술한다. 1단락에서는 김시습의 일생을 출생[離胞]에서 죽음까지 네 시기로 나눈다. 타고난 문재(文才)로 인정 받았던 어린 시절, 단종이 손위했음을 듣고 현실에서 달아났던 방외의 시기, 환속했다가 다시 중이 되는 장년기, 그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2단락은 한 칸 들어서 적은 보충자료에 해당한다. 홍만중은 여기에서 이이(李珣, 1536-1584)의 <金時習傳> 가운데 죽음 대목을 인용하여 김시습의 죽음이 보이는 이적을 강화한다. 그런 점에서 2단락은 일종의 평설이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홍만중은 김시습이라는 인물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시각을 두루 보여준다. 세상에 절망한 유학자, 불문에 의탁한 승려, 신선과 통하는 경지의 도가적 인물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단락별 구성과 연결을 통해 보면 양상은 전혀 다르게 읽힌다. 방외로 떠났다가 환속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삶의 원인이 유학자적 문재와 그 문재가 쓰일 수 없게 되는 국면인 단종의 순위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먼저 김시습이 문재로 인정받은 어린 시절의 일화를 보여줌으로써 아무런 우여곡절이 없었다면 그가 세상에 나아가 크게 쓰일 수 있는 예비된 유학자라는 것을 보여준다. 뒤이어 그가 단종의 양위를 계기로 통곡하고 책을 모두 불사른 예화를 배치함으로써 유학자가 세상과 단절하는 김시습만의 방식을 보여준다. 또 그가 광증이 발하여 변소에 빠졌다가 불문(佛門)으로 달아나는 것은 자발적으로 ‘방외’를 삶의 지향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절의를 지향한 유학자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드러낸다. 방외의 삶에서조차 김시습이 세상에 쓰이지 않을 시를 써서 빗물에 흘려보내고, 달밤이면 <이소경(離騷經)>¹⁸⁾을 외고 통곡하는 모습 등은 김시습의 지향이 세상과 유학에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수동적인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시습은 세조가 연 법회의 주관자로 뽑힌다든지, 최연이라는 인물에 의해 불가사의한 신선으로 목격되기도 하는 등 방외에서도 뛰어난 면모를 보인다. 그런데 단락의 연결 상 그러한 점은 앞에

18) <이소경(離騷經)>은 초나라의 충신 굴원이 지은 초사의 한 편명이다. 굴원은 모함을 받아 임금으로부터 추방당한 뒤, 무너지는 나라를 슬퍼하며 혼란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먹라수에 투신했다고 전해진다. <이소>에는 굴원이 가졌던 나라에 대한 근심과 울분이 담겨 있다. 김시습이 달밤이면 <이소경>을 외고 통곡하는 모습은 단종의 양위 소식에 통곡하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서 드러난 유학자적 문제의 결과물로 보인다. 이로 보면 홍만중은 『명신록』, 『어우야담』에 보이는 김시습의 모습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하고 편집하여 유학자적인 김시습의 모습을 구성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홍만중은 글 안에서 자체적인 시각의 모순을 보인다. 홍만중은 윤춘년의 <梅月堂傳>의 한구절인 “김시습은 오백나한(五百羅漢)을 부를 수 있다고 하였다.”를 인용하고, 그것에 대해 더욱 “기이할 만하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인다. 그런데 실제 윤춘년의 글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세상에서는 선생이 환술을 많이 부린다고 하였다. 그래서 사나운 호랑이도 물리치고 부릴 수 있고 술을 피로 변하게도 만들며 입김을 내어 무지개를 만들기도 하며 오백나한을 부를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역시 다 믿을 수는 없다.¹⁹⁾

홍만중은 윤춘년의 이 대목에서 오백나한을 부를 수 있다는 점만 인용하고, ‘믿을 수 없다’는 윤춘년의 평설도 ‘기이할 만하다’는 자신의 평설로 대체한다. 윤춘년이 보인 유학자적인 입장을 배제하고, 홍만중은 ‘더욱 기이할 만하다’는 말로 개입하여 이적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오백나한을 부를 수 있었다는 내용만 인용한 것은 홍산 무량사에서 죽었다는 점과 연결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를 통해 홍만중은 김시습의 이인으로서의 면모를 부각시켰지만, 이 점은 앞에 말한 바와 같이 전체적인 구성상으로는 김시습의 유학자적인 면모에 초점을 맞추어 인과관계로 귀결시키고 있는 점과는 모순되게 보인다.

다음의 인용문은 <김시습>의 말미로, 이율곡의 <김시습전>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율곡은 왕명을 받들어 <金時習傳>을 지었는데,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동봉은 홍치6년(1493)에 홍산 무량사에서 생을 마치니 그의 나이 59세였다. 화장하지 말라는 말을 남겼다. 절 옆에 초반하였다가 3년 후에 매장하려 관 뚜껑을 열어보니 안색이 살아있는 것 같았다. 중들이 경탄하며 모두 부처라고 생각했다.²⁰⁾

19) 尹春年, <梅月堂傳>: 世以先生爲多幻術 能驅役猛虎 變酒成血 吐氣作虹 邀請五百羅漢 然亦不可盡信, 원문한국고전종합DB.

20) 李栗谷奉教撰金時習傳 亦云 東奉以弘治六年終于鴻山無量寺 年五十九 遺戒無燒 葬權

황윤석은 김시습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반복하여 쓰는데, 글의 말미에 위의 내용을 또 배치한 것은 김시습이 보이는 이인으로서의 면모를 이율곡의 권위를 빌어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작가 홍만종의 개인적 지향이 빚은 결과일 것이다.

황윤석은 홍만종의 <김시습>과 마찬가지로 김시습의 인생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동일한 전개를 보이지만 내용을 대폭 축소시킨다. 그러면서 시종 일관되게 유학자로서의 김시습에 집중한다. 이는 홍만종의 <김시습>이 유학자, 승, 신선으로서의 김시습을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것과는 다른 점이다.

예컨대, 유년기 김시습의 유학자로서 대성할 문재를 보여주는 것은 홍만종과 마찬가지로이지만 황윤석은 『대학』과 『중용』이라는 유가서에 통달한 다섯 살 김시습을 보여준다. 또 단종의 손위 후 홍만종은 승과 신선으로서 뛰어난 김시습을 구체적 일화를 통해 보여주는 데 반해 황윤석은 김시습의 승과 신선으로서의 모습을 삭제한 채 그가 즐겨 머문 산의 이름을 나열한다. 그럼으로써 김시습이 방외의 삶으로 나아간 것이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유학자로서 대성할 문재를 펼칠 길 없는 상황때문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방외의 삶에서 환속한 것을 홍만종은 무척 간략하고 건조하게 전달하고 만다. 그에 비해 황윤석은 안씨의 딸에게 장가들었음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그가 유교적 예법 아래 있고자 했음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아내가 죽자 다시 장가를 들지 않았고 승려의 모습을 했다’는 것은 단종 손위 후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불문에 의탁한 것과 마찬가지로 읽힌다. 다시 장가를 들지 않았다는 것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으려는 절의와 같은 맥락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후 홍만종은 화장하지 말라는 김시습의 유언, 중들에 의한 초빈과 삼년 후 매장과정에서 드러난 김시습 시신의 살아있는 것 같은 안색을 말하며 김시습을 시해신신으로 보려 한다. 또 홍만종은 윤춘년의 <매월당전>을 인용하여 김시습의 이인적 면모를 강조하기도 한다. 이 단락에서 황윤석은 홍만종본과 마찬가지로 화장하지 말라는 김시습의 유언으로부터 살아있는 것 같은 안색²¹⁾

厝寺側 後三年將葬 啓其殯 顏色如生 緇徒驚嘆 咸以爲佛

21) 고전소설 <박효랑전>에도 죽은 뒤에 썩지 않고 살아있는 듯했다는 일화가 보인다. <박효랑전>은 숙종조에 경상도 성주지방에서 실제로 있었던 묘지송사사건을 바탕으로 한다. 억울하게 아버지와 언니를 차례로 잃은 둘째 딸이 남장을 하고 서울에 와서 삼년간 노숙하면서 신문고를 올린 이야기다. 억울하게 죽은 언니의 시체를 검시하니 ‘찌는 듯한 더위에서 6일이 경과했으나 얼굴은 생시 그대로였다’는 것이다. 이는 억울함의 또 다른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살아서의 억울함과 채 풀지 못한 열망이 죽어서도 살아있는 얼굴로 표현된 것이다.

까지를 말한 후 ‘승도들이 그를 부처라 하고 대비하여 부도를 세웠다.’고 함으로써 김시습이 승이 아닌 유학자로서 생을 마치기를 원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아울러 자화상과 자찬, 시집이 남아있다는 말로 그가 철저히 유학자였음을 거듭 밝힌다. 이처럼 황윤석은 홍만종에 비해 김시습의 삶을 대폭 축약하면서 오로지 김시습의 유학자적인 면모를 강조한다.²²⁾

그런데 황윤석의 <김시습>이 홍만종의 <김시습>과 이렇게 다르다면 황윤석의 <김시습>은 <보김시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사실 김시습의 유학자적인 면모는 홍만종본에서도 충분히 드러난다. 특히 김시습의 방외의 삶이 유학자로서의 삶에 문제가 생겨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둘 다 같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시습이 유학자로 살기에 어려운 상황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외의 삶으로 나아갔다고 하면서도 홍만종은 김시습이 지닌 뛰어난 승, 뛰어난 신선의 면모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심지어 이인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기도 한다. 즉 전반적으로 보면 홍만종은 김시습의 유학자, 승, 신선으로서의 면모를 모두 담으면서 이인의 모습을 강조하는 모순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황윤석은 그러한 모순을 삭제하고 유학자로서의 김시습만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황윤석은 그 모순을 언급하거나 지적하면서 김시습을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고, 제목도 ‘보’김시습으로 붙여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황윤석은 홍만종이 다룬 승으로서의 김시습, 신선으로서의 김시습, 혹은 이인으로서의 김시습에 대해서는 짐짓 모른 채 하고 곧바로 홍만종이 다룬 김시습의 유학자적인 면모에만 집중하고 그 모습을 강화한다. 그때문에 황윤석은 <보김시습>이 아니라 홍만종과 같은 <김시습>으로 둔 것이다. 황윤석은 비록 대상인물을 다루는 내용을 홍만종과 달리 하더라도 대상인물을 보는 시각이 같다고 본 경우 이를 확대하고 강조하면서 보를 붙이지 않는다. 그 결과 황윤석의 <김시습>은 동일한 내용으로 보를 붙이지 않은 나머지 13편과 같은 맥락에 있게 된 것이다.

22) 이 글의 일부는 허목의 『眉叟記言』에서 발췌한 것이 확인된다. 황윤석이 출처를 누락한 것이 실수인지 의도적인지 확인할 수 없다.

4. 결론: 유학자적 시각으로 본 이인의 계보

『해동이적』과 『해동이적』 ‘보’는 작가적 지향이 뚜렷한 글이다. 『해동이적』을 살펴보면, 홍만중은 신화, 전기, 정사, 지리서 등의 다양한 문학적 자료를 수용하여 해당인물이 보이는 이인적 면모에 집중하여 이야기를 구성한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따라 『해동이적』은 각 편마다 인물을 중심으로 한 서사구조를 지닌다.

이에 반해 황윤석은 자료의 출처, 인물의 계통, 연대 등을 강화하면서 고증적이고 실증적인 태도로 대상인물을 다룬다. 따라서 『해동이적』 ‘보’는 『해동이적』과 편 구성, 인물 배열의 순서, 주석 사용 등 체제적 변화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인물을 다루는 내용에서도 황윤석은 인물 혹은 자료에 대한 고증과 설명에 치우친다.

그런 의미에서 황윤석이 홍만중의 『해동이적』을 보충한 출발점은 홍만중의 『해동이적』이 드러내는 도가적 지향에 대한 비판의식인 것으로 보인다. 황윤석은 홍만중의 도가적 지향을 비판하고 자신의 유가적 지향을 드러내는 방편으로 홍만중의 글을 고증하면서 이를 ‘보’라고 명명한 것이다. 그 결과 황윤석의 글은 각 편마다 명백하고 일관된 주제를 보이기는 하지만 홍만중의 글이 보이는 인물의 이적 중심의 흥미진진함, 서사적 구조의 긴밀함 등은 약화시킨다.

그러나 황윤석은 홍만중이 다룬 이인들을 유가적 시각 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이인으로 변개시키거나, 그러한 인물을 대폭 새로 추가함으로써 홍만중과는 다른 이인의 계보를 만들었다. 즉 실증, 설명, 고증적 태도로 홍만중의 『해동이적』을 보충하고, 이단의 시각에서 만든 이인의 계보가 아닌 유학자적인 입장에서 이인의 계보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해동이적』 ‘보’의 특징과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한문원전자료

- 洪萬宗, 1995, 『海東異蹟』, 대학사 영인.
洪萬宗輯, 黃胤錫補, 『海東異蹟』, 韓國文獻說話全集 卷六.
『論語』.
『新增東國輿地勝覽』.
黃胤錫, 『頤齋亂藁』.

한국고전종합DB.

동양종합고전DB.

2. 단행본

- 박희병, 2008, 『유교와 한국문학의 장르』, 돌베개, 2008.
심경호, 2001, 『한문산문의 내면 풍경』, 소명출판, 2001.
심경호, 2003, 『김시습 평전』, 돌베개, 2003.
아라키 겐고, 2000, 『佛敎와 儒敎: 성리학, 유교의 옷을 입은 불교』, 심경호 옮김, 예문서원.
柳夢寅, 1996, 『어우야담』, 柴貴善, 李月英 譯註, 한국문화사.
_____, 2001, 『어우야담 : 보유편』, 李月英 譯註, 한국문화사.
이용주, 2016, 『조선 유학의 이단 비판: 『이학집변』을 중심으로』, 새물결출판사.
이성무, 2007, 『조선시대 당쟁사』, 아름다운날.
이재연구소, 2015, 『이재학의 제양상』, 신성출판사.
정구복, 2009, 『頤齋 黃胤錫의 학문과 사상』, 경인문화사.
정재서, 2000, 『도교와 문학 그리고 상상력』, 푸른숲.
조동일, 1986, 『韓國文學思想史試論』, 知識産業社.
진재교, 2005, 『조선 후기 인물전』, 현암사.
최삼룡, 1990, 『한국문학과 도교사상』, 새문사.

- 최삼룡, 1994, 『頤齋 黃胤錫: 영,정시대의 호남실학』, 민음사.
 洪萬宗, 1982, 『海東異蹟』, 李錫浩 譯, 乙酉文化社.
 홍만중 편집, 황윤석 증보, 2011, 『(증보)해동이적』, 신혜진, 김석태 역주, 경인문
 화사, 2011.

3. 논문

- 김도형, 2010, 「이재(頤齋) 황윤석(黃胤錫)의 문학론」, 『국어문학』 49권, 229-251쪽.
 김도형, 2018, 「황윤석의 정체성과 글쓰기의 의미」,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9집 2호, 335-361쪽.
 김영미, 2003, 「‘오세’의 기호로 살펴본 김시습 일화의 의미-[어우야담] 소재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50호, 1-22쪽.
 방용철, 2012, 「[三國遺事] 소재 道敎 관련 기록과 一然의 인식」, 『역사와경계』 85집, 95-124쪽.
 박영호, 1992, 「장생전일고」, 『동아시아문화연구』 22권, 245-266쪽.
 박혜순, 2009, 「俠傳의 초기적 형태로서의 ‘蔣生傳’ 연구」, 『어문논집』 60호, 5-35쪽.
 野崎尙彦, 1992, 「海東異蹟攷」, 『道敎文化研究』 6권, 231-244쪽.
 배아영, 2019, 「황윤석의 『해동이적』 ‘보’의 편술 양상과 의미: 홍만중 『해동이적』과의 동일인물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장리나, 2015, 「조선시대 ‘장생 서사’의 전승 과정과 문예미」,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정순희, 2006, 「조선 후기 산문에 나타난 ‘협(俠)’의 의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0권, 297-319쪽.
 _____, 2010, 「정약용(丁若鏞) 전(傳)의 명명(命名)과 주제(主題) 구현 방식」, 『어문연구』 63권, 197-215쪽.
 鄭在書, 2009, 「道敎 說話의 政治的 專有와 民族 正體性: 韓·中·日 3國의 경우」, 『도교문화연구』 31권, 9-28쪽.
 최범호, 2012, 「[이재난고] 를 통해 본 황윤석의 한국 고대사 서술 유형 분석」, 『전북사학』 40호, 65-90쪽.
 崔三龍, 1993, 「黃胤錫 文學의 道敎的 側面에 대하여」, 『道敎文化研究』 7권, 131-166쪽.

<Abstract>

The Compilatory Aspects and Significance of Hwang Yun-seok's 『Haedong Ijeok ‘Bo’』

Bae, A-young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mpilatory aspects and significance of Haedong Ijeok ‘Bo’ (『海東異蹟』‘補’) written by Ijae Hwang Yun-seok (黃胤錫, 1729 - 1791), through analyzing it in comparison with Haedong Ijeok (『海東異蹟』) written by Hong Man-jong (洪萬宗, 1643-1725). The primary concerns of this article are “What are the purpose and significance of Haedong Ijeok ‘Bo’ written by Hwang Yun-seok, a Confucian scholar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how did he reveal them in the book?”

Hwang Yun-seok makes a genealogy of i-in different from Hong Man-jong’s by transforming i-ins dealt with by Hong Man-jong into i-ins acceptable within Confucian viewpoints, or adding new figures extensively. That is,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Haedong Ijeok ‘Bo’ can be found in that it supplements Hong Man-jong’s Haedong Ijeok with a positive, explanatory, and historical attitude, and compiles a genealogy of i-ins from the position of a Confucian scholar, not a genealogy compiled from the viewpoint of a heresy.

Key Words : Haedong Ijeok, ‘Bo’ (補, supplement), Hwang Yun-seok, Hong Man-jong, I-jeok (異蹟, lit. miracle), I-in (異人, lit. Hermit-Stranger)

* Jeonbuk National University